

美國 食品工業界의 動向

金 濟 華

〈調達廳 物資局〉

1. 개 황

작년도 미국 식품공업의 출하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3.5%가 증가한 2,860억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면에서는 인플레이의 둔화와 경제회복으로 식품소비량이 증가하였으나 무역면에서는 달러화 강세가 미국 식품수출의 장애요인이 되었으며 반대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미국의 식품기업은 메상과 이윤면에서 압박을 받았었다.

식품소비의 배후요인으로서의 인구구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인구증가율은 1960~70년의 연율 1.3%에서 1970~80년에는 1%로 저하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적변동과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회사들은 시장확대를 꾀하는 한편 경제성과 조업확장을 위해 합병을 단행하였다.

(1) 식품가격의 상승

한발로 인한 작물의 수확부족과 상품재고의 감소, 식부면적의 감소로 금년도 식품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작년의 이상기상의 영향으로 농업생산은 나쁜 영향을 받았다. 작년 상반기에는 서해안 지방의 호우로 과일 및 야채가 감소하였으며, 여름에는 주요 농업지대의 잇따른 한발과 이상고온으로 작물수확에 큰 피해가 발

생하였다.

한편 미국농무성의 현물지급계획으로 농가의 휴경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료의 공급이 감소하였다. 현물지급계획에 참가한 농가에는 소맥, 옥수수, 쌀생산 농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농가에게는 감반(減反)의 대상(代償)으로 정부는 대량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한발로 인해 통조림제조업자들에게는 일부 야채(토마토를 포함)의 공급이 격감할 것으로 보이며 가축생산자는 사료가격의 상승으로 가축사육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우유와 돈육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낙농생산에 관한 법률이 의회에서 심의중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유우(乳牛)의 도살이 약간 증가하지 않을까 내다 보인다.

미국농무성은 금년도 식품가격의 상승율을 5~7%로 발표한 바 있는데 유력한 상품분석가의 의견에 의하면 작년 한발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날 금년 하반기까지는 일부 식품은 10~20%로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상대로 식품 이외의 소비자물가 상승이 소폭에 그친다면 식품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작년도 식품가격의 상승은 수년간 계속되었던 급상승과는 달리 상당히 완만하였다. 작년

1~7월의 식품가격수준은 82년 동기보다 1.1%과 상승한데 불과하다. 이에 비해서 81년 1~7월은 전년동기보다 9.4%, 82년 동기는 전년 동기보다 4.1%가 높았다. 또한 78~81년의 식품가격 상승은 연평균 약 8%이었다.

(2) 소비자의 식품비 지출

식품의 개인소비지출은 작년도는 4,160억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증가율은 3.4%이다. 가정용 식품의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2.4%가 증가하였고 개인소비지출 총액중 약 14%를 차지하였다. 외식비는 식품지출 총액의 28%를 차지하여 증가율은 6.7%를 기록하였다.

(3) 이윤

미국의 센서스국에 의하면 대메이커층의 83년 상반기 수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4.4%가 증가하였으며 소규모 베이커층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3.2%가 감소하였다.

(4) 고용감소

작년도 식품부문의 총종업원수는 전년도에 비해 1.2%가 감소한 약 140만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생산노동자수는 전체의 71%를 차지한 약 100만명이었다.

72~83년에 고용감소가 가장 심한 부문은 음료, 유지, 육제품의 3부문으로 생산노동자수는 연평균 1% 이상 감소하였으며 식육 및 가금(家禽)부문의 생산노동자수는 식품공업 전체의 24%를 차지하였으나 72~83년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 식육, 육제품

작년도 식육, 육제품의 출하액은 전년도에 비해 2.3%가 증가한 681억불에 달했다. 83년은 가축값이 내렸기 때문에 72년 이후 처음으로 식육 및 육제품의 생산자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식육, 육제품은 2대부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살고기부문으로써 가축을 도살하는 식육 포장공장과 소시지 및 그 밖의 식육 가공공장 등이 포함되며 둘째는 조육(鳥肉)및 관련제품 부문으로써 식조(食鳥)해체공장과 조육계란가공 공장이 포함되어 있다. 살고기 부문이 전식육가공업의 총출하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1) 소비패턴의 변화

우육과 조육의 소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식육제품의 1인당 소비량이 4.3파운드 증가하여 206파운드에 달했으며 살고기 소비량은 조육에 비해서 76년 이후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살고기의 대폭적인 가격인상, 불안정한 공급, 소비자의 건강식품지향 등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76년 당시는 식육소비중 살고기가 약 75%를 차지하였으나 83년은 69%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우육의 소비감퇴에 기인한 것이다. 76~79년의 1인당 연간평균 우육소비량은 87.8파운드이었고 80~83년은 77.2파운드까지 감소하였다. 반대로 돈육의 소비는 약간 증가하여 76~79년의 1인당 연간평균 57.3파운드에서 80~83년은 63.6파운드로 증가하였다. 돈육의 1인당 소비가 피크에 달한 것은 80년의 68.3파운드이었다. 조육의 1인당 소비는 76년의 52파운드에서 매년증가하여 83년은 65파운드에 달하였다.

(2) 식육가격

작년도 살고기 생산자가격은 82년 수준을 하회하였다. 원인은 사료가격이 올라 가축 사육업자들이 소의 도살을 증가시켰고 또한 경합품인 돈육이 대량으로 시장에 출하되었기 때문이다.

(3) 고용

작년도 식육산업의 고용자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4.8%가 감소한 181,700명이었으며, 한편 기업도산, 파업, 기업매수, 경영난의 기업

매각 등이 빈발하였다.

(4) 살 고 기

① 공급상황

작년도 살고기부문의 출하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2.6%가 증가한 583억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살고기 생산량은 386억파운드에 달하여 전년도에 비해 3.6%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우육의 생산량은 229억파운드로 추정되며 돈육생산은 6%가 증가하여 150억파운드 이었다.

소의 사육두수에 관한 미국농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82년 중반부터 1년사이에 60만두가 감소하여 1억 2,354만두이었다.

사육두수의 감소는 작년 하반기에 들어와서도 감소를 보였는데 원인은 여름의 한발로 육수수가가격이 올라 사육업자들이 축소하였기 때문이었다.

작년은 돼지생산자에게는 이윤이 오르지 못하였던 해였다. 비육용 돼지값이 내렸고 육수수 사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돼지생산자의 보수는 직접비보상도 부족하였다.

② 무 역

작년도 살고기 수입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5%가 증가한 29억불에 달했다. 이 중에서 우육 및 가공품이 61%, 돈육 및 가공품은 30%를 차지하였다.

특히 우육의 칠드름, 냉동품등이 살고기 총수입의 약 1/2을 차지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호주, 뉴질랜드산인 저지방우육이었다.

1979년의 식육수입법에 따라 미국농무성은 총수입량이 정량기준의 11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일 때는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83년의 수입제한발동 수준은 12억 3,100파운드이다.

한편 살고기 수출액(우육을 포함)은 약 3%가 증가한 18억불에 달했으며 총수출의 40% 이상이 대일수출이다. 대일수출식육의 1/3은 우육의 칠드, 냉동품등이 차지하였으며 미국으로 부터의 수출의 30%는 멕시코, 캐나다, 불란서, 대만 등이다.

(4) 식조(食鳥), 난(卵) 가공품

① 공급상황

작년도 식조, 난(卵)가공부문의 출하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가 증가한 98억불로 추정되며 생산량은 약 3% 증가하였으나 생산자 가격은 약 4%가 하락하였다.

조육류(鳥肉類)의 수요가 근년에 현저함에 따라 계육(鷄肉) 및 칠면조육의 생산이 77년의 113억파운드에서 매년 증가하여 작년은 155억파운드로 증가하였다. 조육의 1인당 소비는 77년의 53파운드에서 작년은 63파운드로 증가하였다.

② 고용과 설비투자

작년도 식조(食鳥)부문의 노동자수는 19,500명으로 81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며, 조육가공의 자동화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고 고용증가는 둔화됨으로써 1인당 생산량은 79년이후는 연율로 2.9% 증가하였다.

식조·계란부문의 생산자는 자동화의 추진으로 보다 대규모의 생산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77년 5,770만불 81년은 2억 400만불이상으로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라 종업원 1인당 자본지출은 72년의 626불에서 81년은 1,707불로 약 3배로 증가하였다.

③ 무 역

80년이후 미국의 조육류의 수출시장은 축소되고 있다. 미국의 생산량중 수출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81년의 6%에서 작년은 3%로 떨어짐에 따라 내수용 공급이 파잉현상을 보여 브로이라의 국제가격이 압박을 받았다.

80년부터 83년까지 1파운드당 평균가격은 80년의 47센트에서 83년은 45센트로 하락하였다. 미국에서 브로이라의 생산비는 세계 최저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불란서와 브라질은 미국 생산자의 입찰가격보다 약 30% 하회하는 가격으로 낙찰에 성공하고 있어 이 두나라가 중동시장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5) 전 망

살고기 부문은 금년에 크게 성장하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우육 및 돈육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제품(특히 식육가공품)은 증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의 경기회복에 따라 소비자는 식료품가게에서 보다 품질이 좋은 살고기 가공품을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

가축가격은 금년에 2~6%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금년에 살고기공급이 미국농무성의 예상수준을 하회한다면 가축가격의 상승률은 이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작년 여름의 오랜 한발로 하반기에 가축사육두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금년은 소와 돼지 도살매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살고기 소비자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식조(食鳥)부문의 전망은 밝다. 식조류의 수요증가로 생산은 2%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에 따라 소비자들은 품질이 좋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금년도 식조, 난가공품의 출하액은 약 3.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우유, 유제품

우유, 유제품은 버터, 치즈, 가당(加糖) 및 무당연유(無糖煉乳), 아이스크림 및 냉동디저트, 액유의 부문으로 되어 있다. 작년도의 우유, 유제품의 출하액은 전년도에 비해 2.9%가 증가한 399억불로 추정된다.

(1) 수요의 변화

우유, 유제품의 총소비는 근년에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품목별로는 소비의 증감을 볼 수 있다. 77년부터 82년까지 소비가 감소한 것은 액유, 크림, 탈지유이다. 소비자의 다이어트지향, 영양의식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탈지유 1인당 소비는 연평균 1.9%가 감소하였으며 증가를 보인 것은 저지방유, 요구르트, 크림가공품이다.

프리미엄품 이외의 아이스크림과 디저트는 인기가 하락했는데 인구구성의 변화가 아이스크림수요의 감퇴를 촉진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소비자의 핵심인 5~19세의 젊은층 인구가 77년부터 82년까지 연율로 1.3%가 감소하였다.

버터와 마가린에 있어서는 작년은 전자의 1인당 소비가 5.6%가 감소하여 4.2파운드, 후자는 1파운드로 보합세를 보였다. 치즈의 수요를 보면 미국산 치즈의 1인당 소비는 작년은 1인당 소비가 9.2%가 감소한 10.3파운드로 추정된다. 특제 치즈의 소비는 77년부터 82년까지 연율 4.8%로 증가하였고 작년도 특제치즈의 1인당 소비는 3.4%가 증가한 8.9파운드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프로세스 치즈의 1인당 소비는 14%가 감소한 6.6파운드이다.

(2) 고용과 임금

작년도 우유, 유제품산업의 총고용자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2.4%가 감소한 144,000명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생산노동자수는 0.6%가 감소한 82,900명이었다. 우유, 유제품산업의 시간당 임금은 각종 식품가공업중에서 제 5위의 높은 수준에 있으며 생산노동자의 평균임금은 5.6%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낙농정책

우유, 유제품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질서, 가격지지 및 수입수량할당이다. 시장질서라는 것은 우유, 유제품의 생산자와 미국농무성과의 사이에서 최저가격 및 그 밖의 우유의 시장거래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이다. 미국농무성은 최근 낙농가격 지지계획에 대해서도 관할하고 있다.

농무성의 상품신용공사가 유제품(버터, 치즈분유를 포함)을 매상하여 보편한다, 유제품(특히 치즈)수입의 수량할당조치는 유제품의 국내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미국식품공업의 부문별 출하액
(단위 : 100만불)

구 분	81	82	83	전년비 (%)
식품계	272,141	276,583	286,303	3.5
식육포장	44,570	45,385	46,258	1.9
소시지 및 기타 식육 가공	10,887	11,437	12,019	5.1
가금육, 해체	9,044	8,252	8,327	0.9
가금육, 난가공(卵加工)	1,408	1,461	1,487	1.8
크림, 버터	1,258	1,305	1,268	-2.8
내추럴, 가공 치즈	10,429	11,889	12,846	8.0
가당 및 무가당연유	4,808	4,836	4,842	0.1
아이스크림, 칠드레저트	2,935	3,024	3,178	5.1
액 유	17,512	17,753	17,780	0.2
조제 및 식품 통조림	3,851	4,006	4,078	1.8
통조림 과일, 야채, 보존식품, 잼, 젤리	9,033	9,518	9,555	0.4
건조 및 탈수 과일, 야채, 수우프믹스	1,592	1,653	1,644	3.2
피클, 소오스, 샐러드드레싱	3,890	3,982	4,108	3.2
냉동의 과일, 수우스, 야채	4,780	5,058	5,136	1.5
냉동조제식품	4,573	4,868	5,139	5.6
소맥분, 기타 곡물계품	5,314	5,181	5,180	0
곡물계 조식용식품	3,950	4,104	4,186	2.0
정 미	2,322	1,496	1,445	-3.4
혼합 및 배합 소맥분	1,348	1,338	1,429	6.8
습식 옥수수 제분	3,836	3,745	3,694	-1.4
기타 애완동물사료	3,800	3,830	4,044	5.6
동물용의 배합사료 및 사료원료	11,345	11,114	11,657	4.9
빵및빵류식품	12,494	12,972	13,415	3.4
쿠키및크래카	4,411	4,562	4,866	6.7
정제물 제외 한 자당	1,345	1,296	1,306	0.8
사탕정제	3,773	3,645	3,666	0.6
감채당	1,873	1,812	1,822	0.6
캔디 및 기타 과자제품	6,334	6,748	7,148	5.9
초콜렛 및 코코아제품	2,152	2,054	2,230	8.6

추우잉검	807	787	847	7.6
면실유공장	1,086	934	985	5.5
대두유공장	9,177	8,519	8,843	3.8
옥수수, 면실 및 대두를 계 의한 식물성 유공장	582	476	487	2.3
동물성 및 해 산유지	1,902	1,612	1,702	5.6
소트닝, 요리 용유	5,202	5,222	5,261	7.6
몰트주	10,179	10,630	11,217	5.5
몰 트	743	786	811	3.2
와인, 브랜드 증류, 정류 및 혼합주	2,408	2,613	2,710	3.7
청량음료, 탄 산수	3,605	3,633	3,676	1.2
풍미용시럽	15,286	15,731	16,486	4.8
통조림가공어 및 해산물	3,855	3,642	3,821	4.9
냉동어 및 해 산물	2,588	2,580	2,832	9.6
로우스트커피	3,409	3,905	4,232	8.4
제 빙	5,717	6,023	6,300	4.6
제 빙	200	203	213	4.9
마카로니, 슈 퍼겟티	938	973	1,049	7.8
기타식품	9,599	9,990	10,718	7.3

가금육(家禽肉), 난가공품(卵加工品)의 동향

구 분	81	82	83	전년비 (%)
시 장 가 격 (100만\$)	10,453	9,714	9,814	1.0
취 업 자 수 (1,000명)	120	118	120	1.7
생 산 부 문 수 총 (1,000명)	109	107	109	1.9
시간당 평균 소득(\$)	4.88	5.16	5.30	2.7
자 본 지 출 (100만\$)	204	—	—	—
출 하 액 (100만\$)	10,004	9,335	9,392	0.6
수 출 액 (100만\$)	553	347	300	-13.5
수 입 액 (100만\$)	16	15	12	-20

낙농제품의 동향

구 분	81	82	83	전년비 (%)
시 장 가 격 (100만 \$)	36,941.7	38,806.8	39,913.5	2.9
총 종업원 수 (1,000명)	147.1	143.9	140.4	-2.4
생 산 부 문 수 (1,000명)	84.7	83.4	82.9	-0.6
시간당 평균 소득(\$)	7.70	8.25	8.71	5.6
자 본 지 출 (100만 \$)	532.6	—	—	—
출 하 액 (100만 \$)	33,393.3	35,091	36,098.7	2.9
수 출 액 (100만 \$)	383.2	409.3	405.4	-0.1
수 입 액 (100만 %)	519.8	609.9	672	10.2

낙농의 시장질서, 지지가격방식, 수입제한 등의 지지과들로 이러한 정부개입조치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우유의 공급을 소비자에게 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유생산의 사이클성, 시장의 안정, 낙농자원보전을 위한 진흥책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반대파들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액유(液乳)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유제품에 대한 소비기호의 변화, 인구구성의 변화 우유의 지지가격과 소비자 수요와의 불균형 등이다.

미국농무성은 잉여유제품의 증가추세를 완

화시키기 위해 빈곤자층에 대한 무상배급을 추진하는 조치를 취하여 82년은 미국산 치즈의 무상배급량이 2,900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이외에도 버터와 탈지분유도 배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제품메이커조합은 불만을 표시하고 무상제품의 대량방출로 상품매상이 저해받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이와 같이 상품유통망의 혼란이 표면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지파들은 유제품의 무상배급의 증가를 주장하고 있어 논쟁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 망

금년도 낙농품의 총소비는 1%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는 치즈의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버터 및 액유는 수요가 감퇴될 것으로 보이며 가당, 무가당연유의 소비는 보험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아이스크림 및 냉동디저어트의 소비도 마찬가지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면에서는 유우(乳牛)의 전국사육두수 1,110만두의 일부를 삭감, 그 보상금을 정부가 지불하려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거액의 정부지출을 요하게 될 것이다. 현행의 우유지지가격이 인하된다면 일부 낙농민에게는 경영난을 의미하게 될 것이나 유제품메이커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